

## 非 唯物的 哲學觀(一)

裴相河

### 一. 遁辭

나는 이 글을 쓰기에 몇 번이나躊躇한다. 만흔 사람이 이 글의骨髓를眞實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 것 가트면 이러한 것을 쓰는 것은 正말로 危險한 일이다. 『順』은 平利와 喜樂을 表示하고 『逆』은 □□과 哀苦를 象徵한다고 볼 것 가트면 현대에 謳歌되는 唯物論的의 脾胃를 傷한다는 것은 반듯이 個人의 動亂(內的)과 社會의 迫苦(外的)를 免치 못할 妄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더구나 朝鮮에 잇서서는 더 한層 이러한 感이 만흔 것은 事實이다. 그러치만은 또한 그 反面에는 『順』은 屈辱과 倦怠를 意味하고 『逆』은 强氣와 清新을 包含하고 있다. 말할 것 업시 唯物論은 現代의 流行思潮이다. 이 流行思潮의 흘르는 대로 짜라서 배질함은 所謂 『順』이니 반듯이 『大衆的』일 것이며 大衆的인만큼 同志를 엇기쉽고 『파르돈』을 잇글기 쉬운 利得之事라고 할 수 잇겠지만은 公利的 見地에서만 보면 吾人은 不可避한 反逆에 대한 快味와 可望率이 極小한 일을 成就해보려는 危險味가 얼마나 倦怠와 絶望만이 彌滿하고 잇는 우리의 現時生活을 복도드고 잇는지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깐 나로서는 設습 이 글이 반드시 危險을 招來치나 안흔까하는 疑心도 적지 안치만은 그와 同時에 이 危險에 質은 快味(反逆의 快味)의 誘惑을 免치 못하여 正말로 勇敢스리 쓰겟다고 붓을 들었다. 아모리 唯物論的 『非大衆的』이라 하엿지만은 『非唯物的』·『非大衆的』이란 自體가 발서 『唯物的』과 『大衆的』을 前提하고 잇는 것이니 行여나 나의 글에서 『唯物的』·『大衆的』의 長所短所에 貢獻이 잇다면 하는 期待도 적지안타. 이 期待야말로 나의(힘弱하지만은) 遁辭이다만은 이 遁辭는 表面的 遁辭이니 이 글을 未熟하게 이해할 때에만 限하여 使用하리라는 遁辭이다. 萬若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다 가티 이 글의 眞內容을 把握할 수만 잇다면은 質아서 以上の 表面的 遁辭는 無用之物이 되고 만다. 期於코 나의 表面的 遁辭가 無用之物이 되기를 바란다.

## 二 . 먹는 것(絶對的 物的 要求)

먹지 안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가 먹어야만 한다. 設或 살려는 意慾이 稀薄해진 사람 다시 말하면허는 수 업시 『삶』에 잇슬리고 잇는 사람 所謂 『살려지는』사람도 亦是 적어도 하로 한끼 以上은 먹어야만 하는 것 갓다. 秦始皇도 먹고야 살엇고 乞人도 살려고 먹으려다. 이로부터 『먹는것』만이 生活的 最大根原이란 定價를 부쳐도 조금도 割引해볼 餘地도 업시 되어있다. 勿論 學的으로 細密히 研究하면 『먹는것』보담더 緊要한 生活條件이 몇가지나 잇슬것이며 于今常識的으로 生覺해보아도 『먹는것』보담 『숨쉬는것』이 더 切實한 生活根原이갓지만은 숨쉬게 하는 客觀的 要素인 空氣에 對해서는 아직까지 『空氣一呷에 何圓也』라는 私私賣買契約이 成立되었다는 말을 듯지 못한이 만큼 私有의 制度가 업는 것 갓다. 私有觀念을 超越한 空氣기 때문에 『나에게 空氣를 다오 그러치 못하겠거든 죽엄이라도 다오』라는 哀願이 생기지도 안코 짚어서 空氣의 重要性을 그닥 現實的으론(勿論 學的 反省에잇서서는 意味가 달리지지만) 늦기지 안는 模樣이다. 『먹는것』의 客觀的 要素인 『먹을것』도 宇宙가 開關되고 짚어서 大地가 創造되었슬 때부터 얼마동안까지는 應當 私有觀念의 奴隸가 되지 안헛슬 것이지만은 (나는 決코 여기서 經濟學原理를 論究하고 잇슴은 아니다) 그러저럭 제 各其 얼마式 차지게 된 以後 今日에 잇서서는 가장 □□한 세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잇는 ○○主義 ○○思想을 생기게한만큼 『먹을것』의 重大性이 擴張되어있다. 그러므로 筆者는(筆者 亦是 現代人の 먹어야만하는 一員이니) 먹는 것으로써 生活的 最大條件이라 하엿스며 짚어서 아모리 徹底한 唯物主義일지래도 그 根據를 이 點에 許認할 수 잇스리라고 밋고있다. 勿論 本論에 잇서서는 物이 心を 制約하느냐 心이 物을 規定하느냐 等 □의 循環論法을 避하리라만은 物만이 모-든 것을 支配하며 物만이 모든 것을 (berechtigen)하고잇다고 밋고잇는 『唯物的인 너무나 唯物的』인 이 點에 對하여 나는 論述을 展開식킬 必要를 늦기지안는다. 그러면 設或 唯物論者의 主張과 가티 物에게만 君王(根原)적 權威를 許認한다고 前提할지언정 여기서 또한 根原이곳 完全이나 起點이 담박에 終點을 意味하느냐의 당연한 問題가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辨證法的 唯物史觀 또는 實證科學은 只今까지의 모-든 非科學的 形而上學(그러타! 形而上學은 非科學的이다)과 唯心論的 體系를 排擊하고 잇지마는 果然 그네들은 그네들만의 根本的이라고 생각하고 잇는 『物』이란 城을 □□할 다름으로써 더 낮고 더 完全한 生을 發見할수잇느냐 업느냐가 큰 疑問인채로 남겨잇게될 것이다. 나는 以下에 『사람』의 心理分析이란 材料로 말미

암아 (나에게는 큰 負擔이지만) 이 疑問을 解決해야볼까 한다. 이 疑問이 解決됨으로써 비로소 唯物論과 唯心論이 永遠히 東西로 논하지고말 拋物線이 될는지 또는 水의 成分인 H<sub>2</sub>와가튼 綜合의 分子가 될지도 判明될 줄 맞는다.